

사도행전 12장 6-19절 말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다

- 0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 0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 0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겹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 0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고 간증하다

-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 12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 1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건 이후

18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